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연령기준 Older Adults' Perspectives on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김 정 현*

서울시복지재단

Junghyun Kim

Seoul Welfare Foundation

(초록)

노인 연령기준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본 원고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분석하였다. 201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은 평균 72.5세로, 사회제도적 노인 연령기준인 65세와 차이가 있었다. 7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응답률은 2016년 23.0%에서 40.1%로 증가하였다. 노인 연령기준을 다섯 범주로 나누어 응답자 특성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건강상태·여가활동 만족도, 우울여부에 따라 노인 연령기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일수록 더 높은 노인 연령기준을 제시하였다. 당사자인 노인 인구 내에서도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다양성이 확인된 것이다. 원활한 노년기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실제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연령기준, 서울 노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Abstract)

There might b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but Koreans consider 65 years or older as old ag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grasp older adults' perspective on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 교신저자: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정현 박사 (e-mail: jhkim@welfare.seoul.kr)

old ag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2018 Seoul Aging Survey” data of 3,034 Seoul citizens over 65 years ol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2018 Survey, the citizens responded that the chronological age for old age was 72.5 years in average. The ratio of considering over 75 years old as old age increased from 23.0% in 2016 to 40.1% in 2018. The results of cross tabulation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age, education level, satisfaction levels of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leisure activities, and depression level. The mo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life the respondents are, the higher levels the chronological definition of old age is. Diverse perspectives on the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were found among the older adults. For supporting adaptation to later life, the impact of subjective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on older adults needs to be evaluated.

Key words: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older adults in Seoul, Seoul Aging Survey

I. 서 론

연구주제에 상관없이 고령자 문제를 다루는 상당수의 학술 논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노인 증가에 따른 인구 변화, 초(超)고령 사회의 도래 등으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노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노인(老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어떤 일이나 역할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성기를 이미 지나 별다른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Cuddy, Norton, & Fiske,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1조 2항 5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조항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항에서 제도의 주된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제도적 편의를 위하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Yoon, 2016). 그러나 근래에는 나이가 많더라도 심신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에 못지않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연령을 토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대를 반영하듯이 2019년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의 기준을 30년 만에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높인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현행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65세도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년학연구에서는 2016년 제25권을 발간하면서 특집주제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사회복지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법학, 건축학, 로봇공학, 가족학, 의학, 간호학, 역사학, 식품영양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근거를 들어 65세라는 노인의 연령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연령기준의 변경 자체가 실제 고령자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Youn, 2016). 노인의 연령기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양하며, 이에 대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집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현행 사회제도를 기준으로, 이미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65세 이상 당사자들은 노인의 연령기준을 몇 세부터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2018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Kim & Kim, 2018),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은 평균 72.5세로 사회제도적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부분은 65세 이상 시민들조차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양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한 부분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문항들에 대한 응답들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실시했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이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연령은 2016년 평균 71.0세에서 2018년 72.5세로 불과 1.5세 증가하였으나, 노인의 연령기준을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사이에 23.0%(2016년)에서 40.1%(2018년)로 증가하였다(<Table 1>참고). 이와 같은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연령기준 설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의 연

령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방 법

1. 분석 자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에 근거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창기 두 차례의 실태조사, 즉 2012년과 2014년도의 조사는 5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 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65세 이상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설문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7개 영역(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활동, 존중보호, 돌봄)으로 구성되었으며,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이 응답하였다. 본고는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문항 중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분석 자료인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Table 1> Responses of Seoul Citizens 65+ to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n (%))

Response Category for Minimum Age Limit	2016 Survey (N = 3,058)	2018 Survey (N = 3,034)
64 years or younger	10 (0.3)	35 (1.2)
65 ~ 69 years	444 (14.5)	382 (12.6)
70 ~ 74 years	1,900 (62.1)	1,398 (46.1)
75 ~ 79 years	473 (15.5)	674 (22.2)
80 years or older	231 (7.5)	545 (18.0)
M (SD)	71.0 (3.97)	72.5 (5.00)

의 응답자 기준에 의거하여 본고에서 언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귀하는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연속변인(continuous variable)으로 측정되었으며,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2.5세($SD = 5.00$)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다만 본고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연령기준, 즉 측정치를 편의상 다섯 개의 범주(64세 이하, 65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70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7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 및 80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으로 고려된 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등)과 건강 및 신체기능 상태(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근로활동 여부 등이며, 각 특성별 노인연령기준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응답자의 실제 연령과 학력에 따른 노인의 연령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실제 연령이 높을수록 8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Table 2>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더 젊게 지각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Jung, 2016).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노인의 연령기준은 교차분석의 항목을 살펴볼 때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노인 연령기준을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36.9%였지만, 중학교 졸업은 43.2%, 고등학교 졸업은 39.5%, 그리고 초급대학 졸업 이상은 47.7%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2>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Age (%)

b	a	65~69 years	70~74 years	75~79 years	80 years or older	χ^2
		(n = 879)	(n = 790)	(n = 710)	(n = 655)	
64 years or younger		1.4	0.6	1.5	1.1	63.6***
65~69 years		14.8	11.5	11.4	12.2	
70~74 years		50.3	45.6	45.5	41.7	
75~79 years		22.4	24.4	22.1	19.4	
80 years or older		11.1	17.8	19.4	25.6	

Note. a. Respondents' age category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01$

<Table 3>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Years of Schooling (%)

b	a	6 years or less	7-9 years	10-12 years	Over 13 years	χ^2
		(n = 1,127)	(n = 737)	(n = 889)	(n = 281)	
64 years or younger		1.8	0.5	0.7	1.8	22.8**
65~69 years		14.2	11.9	11.9	10.0	
70~74 years		47.1	44.4	47.9	40.6	
75~79 years		19.9	23.9	23.1	24.6	
80 years or older		17.0	19.3	16.4	23.1	

Note. a Respondents' education level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1$

경제적 상태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기준보다 더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관적으로 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에 비해 노인으로 여길 수 있는 연령의 시작을 75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

씬 더 높았다(<Table 4> 참고).

주관적 건강 상태의 만족도와 노인 연령기준 간의 교차분석 결과도 앞에서 소개한 경제 상태 만족도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과 보통이나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 사이에 노인 연령기준 응답유형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된다. 즉 스스로 느끼는 본인의

<Table 4>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Self-rated Economic Status (%)

b \ a	Not satisfied (n = 888)	Neutral (n = 1,385)	Satisfied (n = 781)	χ^2
64 years or younger	1.4	0.9	1.3	28.7***
65~69 years	11.8	14.4	10.4	
70~74 years	50.9	44.7	43.1	
75~79 years	21.1	22.6	22.8	
80 years or older	14.9	17.4	22.4	

Note. a Respondents' economic status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01$

<Table 5>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Self-rated Health Status (%)

b \ a	Not satisfied (n = 844)	Neutral (n = 807)	Satisfied (n = 1,383)	χ^2
64 years or younger	1.4	0.7	1.2	31.1***
65~69 years	14.7	14.0	10.5	
70~74 years	50.5	42.5	45.5	
75~79 years	19.8	23.0	23.2	
80 years or older	13.6	19.7	19.6	

Note. a Respondents' health status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01$

건강 상태가 적어도 보통 또는 만족스러울 경우, 노인 연령기준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43%에 육박하였다. 이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응답자의 경우 (33.4%)보다 확연히 더 높은 것이었다(<Table 5> 참고).

평소 고령자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만

족을 경험하는 것은 건강이나 경제 상태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Tinsley, Colbs, Teaff, & Kaufman, 1987). 실제로 여가생활 만족도에 따른 노인

<Table 6>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Self-rated Leisure Satisfaction (%)

b \ a	Not satisfied (n = 499)	Neutral (n = 1,353)	Satisfied (n = 1,182)	χ^2
64 years or younger	1.6	0.9	1.3	49.1***
65~69 years	14.8	14.3	9.7	
70~74 years	54.3	43.6	45.4	
75~79 years	18.8	23.2	22.5	
80 years or older	10.4	18.0	21.1	

Note. a Respondents' leisure satisfaction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01$

연령기준을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률은 여가생활을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21.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10.4%)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Table 6> 참고).

노인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는 단축형 우울척도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이하 SGDS)가 추가되었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SGDS는 15점 만점이며, 8점 이상일 경우 응답자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Cho, Bae, Suh, Hahm, Kim, Lee, & Kang, 1999; Sheikh & Yesavage, 1986). 우울증상 여부에 따른 노인연령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 Minimum Age Limit for Older Adults according to Respondents' Depression Symptoms (%)

b \ a	Depressive (n = 502)	Non-depressive (n = 2,532)	χ^2
64 years or younger	2.2	0.9	29.1***
65~69 years	16.5	11.8	
70~74 years	50.4	45.2	
75~79 years	18.1	23.0	
80 years or older	12.7	19.0	

Note. a Respondents' symptoms of major depression

b Category of minimum age limit

*** $p < .001$

<Table 7>과 같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16.5%($n = 502$)였는데, 그들 중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75세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30.8%였던 반면, 69세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18.7% 정도였다. 이는 현재까지 분석한 노인의 특성 중 가장 낮은 노인 시작연령이며, 특히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인들 중 2.2%는 64세 이하를 노인 시작연령으로 꼽았다. 반면에 우울증상을 보이지 않는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75세(23.0%) 또는 80세 이상(19.0%)을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우울증상 유무를 떠나 고령자들의 우울증상 심각성 수준에 따라 노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나이를 분석한다면 보다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6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연령기준을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방법의 일종인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연령이나 학력,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우울여부 등에 따라 노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연령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범주로 설정하고 Table로 정리·소개하였다. 단순한 분석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적으로

‘노인’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개괄하자면, 자신의 상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고령자일수록 노인의 연령기준을 더 높게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노년기에 접어든 고령자들 또한 자신이 노인에 해당되는 연령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Jung, 2016). 실제 노화를 체감하고 있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의 역할 변화를 수용하고 생의 마지막 단계로 전환(轉圜)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편함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결과는 사회제도적 차원의 노인 연령기준을 떠나, 당사자 스스로 ‘노인’이라고 칭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수월하게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지역(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분석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도시나 농어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개별면접조사가 가능하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손상이 비교적 적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향후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좀 더 다

양한 특성을 지닌 고령자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노인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는 시도가 있어야겠다.

References

- Cho, M., Bae, J., Suh, G., Hahm, B., Kim, J., Lee, D., & Kang, M. (1999).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GDS)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 (1), 48-63.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 267-285.
- Jung, Taeyun (201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5, 9-12.
- Kim, J., & Kim, Y. (2018). *The 2018 Seoul Aging Survey*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Seoul: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시복지재단).
- Tinsley, H., Colbs, S., Teaff, J., & Kaufman, N. (1987). The relationship of age, gender, health and economic status to the psychological benefits older persons report from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Leisure Sciences*, 9, 53-65.
- Yoon, Min-Suk (2016).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5, 17-20.
- Youn, Gahyun (2016). Do we need a new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in a era of population ag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5, 1-7.
- Sherikh, J., & Yesavage, J.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T. L. Brink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165-173). New York: Haworth Press.
- 원고접수일: 2019. 09. 20.
수정원고접수일: 2019. 10. 22.
원고게재승인일: 2019. 11. 11.